

수능 D-100 “문제풀이 꾸준히 하고 취약부분 집중 보완”

의대 증원·무전공 등 변수 커져 N수생 늘어 상위권 경쟁 예상
킬러 없지만 고난도 문항 출제

국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듯
영어, 하루 지문 10개씩 꾸준히
수학, 빠르고 정확한 풀이 연습

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우선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한 변수가 크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의대 정원이 27년 만에 대폭 늘어나면서 의대 열풍은 더 거세지고 있고, 이에 따라 'N수생'이 크게 늘어난 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유입된다면 수능 출제기관은 수험생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 고난도 문항 출제 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25학년도 대입은 자율전공(무전공) 정원이 전년보다 2만8천여명이나 늘었다. 이에 따른 입시 불확실성이 커져 기존 입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격선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인한 '기준에 접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항' 출제도 큰 변수다.

킬러문항 배제 이후 처음 치러진 지난해 수능에서는 킬러문항 못지않게 까다로운 고난도 문항도 여럿 출제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근 모의평가 출제 경향 분석을 토대로 올해 수능 또한 변별력 높은 문항이 출제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기에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고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혹감을 극복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국어는 지난해 킬러문항 배제 발표 후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으로 변별력이 매우 높게 출제됐다.

지난해 수능 때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패턴이 유지될 것이다.

수학 또한 지난해 수능 때 표준점수 최고점(148점)보다 올해 6월 모의평가 표준점수 최고점이 152점으로 난도가 더욱 상승했다.

절대 평가인 영어 또한 1등급 비율이 지난해 수능 때는 4.71%였는데, 올해 6월 모의평가 때는 1.47%밖에 불과해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수능도 어렵게 출제될 것 같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난도의 모의고사는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 보면서 고난도 문항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제를 풀 때도 각 지문별로 시간의 분배, 어느 지문을 먼저 풀지를 생각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학은 중상 난이도 문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어는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 까다로운 선택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EBS는 수능을 100일 앞두고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EBS 대표 강사들은 수능 출제가 EBS 교재와 연계되는 만큼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풀면서 '개념 학습'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어는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수학의 경우 100일이 남은 만큼 본인이 익숙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4일 광주경신여고 3학년 수험생들이 2교시 수학 영역 문제를 풀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문제를 풀기보다는 취약 부분의 문제 풀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어 또한 하루에 지문 10개 정도를 꾸준히 풀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킬러문항 배제되었지만 2025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변별력 높게 출제 예

상된다"면서 "예상할 수 없는 문항에서 어려운 문항 돌발상황 발생, 시간안배, 당혹감 극복 과제다. 특히 EBS 연계 학습 중요도 상승, 그러나 고난도 문항 출제에 대비해 비연계 문항에 대한 학습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전남교육청 자연탐구원, 아동센터 학생 대상 광주과학관 체험교실

장성·담양 지역 60여명 참여

전남교육청자연탐구원은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장성·담양군 내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생태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체험학습에는 장성·담양 지역 4개 지역아동센터 6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국립광주과학관 내 다이노 클래스 특별전시관과 다양한 과학 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체험교실을 둘러봤다.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공룡의 종류와 역사 및 다양한 공룡화석들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과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상설전시관과 미래 지향적 삶을 예견할 수 있는 인공지능관 체험, 정글 속 동물과 함께 지리하는 인간의 삶을 다룬 4D 영상 시청 등을 통해 과학과 생태의 연계성에 대한 탐구 기회를 가졌다.



지난 1일 생태체험교실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이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강숙영 전남교육청자연탐구원 원장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생태환경 체험교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일자리플러스센터, 광주여성 기업탐방프로그램 지원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김영중) 재학생 총 14명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광주여성 학생들은 AI 관련 기업 ㈜위치스(광주광역시 남구 소재)를 방문해 산업현장

분위기를 몸으로 익히고, 직무 역할과 VR 체험 등을 통해 기업과 직무에 대한 이해와 진로를 모색하는 시간을 보냈다.

신준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기업탐방은 취업을 준비하는 광주여성 학생들의 기업

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입사 의지를 다지고 취업과 진로 목표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7월 22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와 유익적 연계 협업을 통한 진로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2025년 글로벌대학 선정 위한 구성원 의견수렴



조선대, 2025 글로벌대학 대비 초청특강 및 교무위원 간담회.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2025년 글로벌대학 30 선정을 위한 내부 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선대는 최근 교무위원 워크숍에서 '총장 주관 글로벌대학30 추진 토의 및 외부인사 초청강연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듣고 자문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조선대는 2025년 글로벌대학 추진을 위한 대학혁신위원회와 단과대학 추천 전임교원 위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운영계획을 학교 구성원과 공유했다. 지역 연계 CSU도사캠퍼스 추진 방안도 소개했다.

이후 김춘성 총장은 교무위원과 각 사업단을 대상으로 120분간 글로벌대학 토론회를 통해 소통하는 시

간을 가졌다. 토론은 각 단과대학 학장 위주로 '통합·연합', '특성화 방향', '학사구조·교육과정' 주제별 각 대학 논의된 의견을 제시한 후 아이디어를 모았다.

또한 초청강연을 통해 2025년 글로벌대학 추진을 위한 자문 및 분석과 전략방향을 모색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화시대, 글로벌 대학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글로벌대학 선정을 위한 주요 정책 트렌드 및 핵심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김혜미 한국능률협회 대학혁신센터장은 '글로벌대학30 사업과 우리대학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글로벌대학 필요성과 각 선정 대학 전략 위주의 분석과 혁신모델 제안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